

민주당·혁신당,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연이틀 총력전

10·16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이틀 총력전을 펼쳤다.

▶관련기사 4편

전날 영광을 방문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4일 오전 곡성을 찾아 “곡성·영광군수 후보들이 지역민의 지지로 당선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노인회 곡성군지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곡성과 영광은 이번에 주민기본소속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며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흔쾌한 마음으로 자부심 갖고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신안군의 햇빛 연금처럼 재생에너지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면 얼마든지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겠느냐”며 “예산을 아껴 분기별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 가게도 살아나고 어르신 지원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예선만 지나면 본선은 쉽게 된다는 이런 생각들

이재명, 곡성 찾아 “기본소득 시범 도입” 지지 호소

조국, 박용두·장현 후보와 함께 민생·청렴공약 발표

때문에 지역 주민들, 국민들에 대해 진지하게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이제 이곳을 뒷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의견을 ‘죽비’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미워도 다시 한번’하며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앞으로는 ‘역시 우리 자식이야’라며 민주당

원 설립 ▲마을안심 왕진버스 운영 ▲건강튼튼 반찬배달 ▲곡성행복지원금 10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장현 후보는 ▲CCTV 설치와 업무 일정 공개 등 투명한 군수실 운영 ▲연 150만원 간병비 지원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 지급 ▲마을순회 왕진버스 운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 대표는 “두 후보 공약의 공통점은 민생과 청렴”이라며 “민생 정책 공약으로 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다. 한 점 부끄럼 없는 청렴으로 무너진 공동체성과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당은 재선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며 “재선거가 계속 불거지는 것은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 독점이 아니라 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곡성·영광 발전에 시너지가 생기도록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제대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TV 토론, 현장 토론 횡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열자”고 제안했다.

김재정 기자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곡성군민회관 앞에서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왼쪽).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후보들과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대표가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후보들과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서 5곳 ‘최고 등급’

농업박람회 최하위...바이오진흥원 기관장 평가 최우수

전남도는 24일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혁신을 위해 16개 출연기관과 17개 출연기관장 경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 5개 기관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 평가는 2023년 경영 실적을 대상으로 지난 8월까지 6개월 동안 이뤄졌다.

평가 결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전남사회서비스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가’ 등급은 지난해보다 1개 기관이 늘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전남관광

재단, 전남문화재단,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연구원 등 8개 기관은 ‘나’ 등급,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남도장터는 ‘다’ 등급, 전남농업박람회는 최하위인 ‘라’ 등급이다.

기관장(CEO) 성과 평가에서는 전남바이오진흥원이 전년보다 2등급이 오르며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전남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전남사회서비스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관광재단,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순천의료원, 전남테크노파크, 남도장터, 전남문화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12개 기관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남도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0월까지 기관별로 미진한 부분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양시원기자

姜시장 ‘웹툰 AI 적용’ 필요대화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3일 ‘광주 대표산업 인공지능(AI)과 웹툰이 만나다’를 주제로 ‘4번째 월요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월요대화는 문화콘텐츠산업 중 성장성과 확장성이 큰 웹툰에 AI를 적용한 특화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AI와 웹툰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시가 달라져야 할 점에 대해 ‘인공지능 디지털 문화콘텐츠 R&DB 센터 건립’,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중심축)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성기기자

김지사 “대학 통합하면 공동의대 추진 가능”

“쉽지 않은 길이지만 기우로 안된다 해선 안돼” “투트랙 어떤 결론 나든 1의대·2부속병원 설립”

전남권 국립과대학 설립과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가 24일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하면 공동의대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지사가 ‘공모’와 ‘대학 통합 전제 공동의대’ 등 투트랙 방안 중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1의과대학-2부속병원’ 설립 방향에 방점을 찍어 향후 목포대·순천대가 본격적인 대학 통합 논의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공모와 대학 통합을 통한 공동의대 등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나든 1개의 의대와 2개의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가 ‘1도 1국립대학’ 체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시각에서 대학 통합으로 하나의 국립대학으로 하고, 하나의 의대를 유지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공동의대 전제조건인 대학 통합이 어려워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데 분명 쉽지 않은 길”이라면서도

“어렵다고 쓸데없는 기우로 안된다고 하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대학과 함께, 도민과 함께 지원하고 호응하고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1월 전남도의 공동의과 대학 제안을 반대한 것과 관련, 김 지사는 “당시 대학 통합 이야기를 안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여러 경로를 타진 해보니 확실히 (목포대·순천대가) 통합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단시간에 많이 오는 비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폭우 대책, 지역 소득 역외유출 감소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생활인구 확대·복수주세 도입 등 현안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김재정기자

2024 Art Bank

‘예술을 선물합니다’

2024. 9. 27. (토) - 10. 6. (일) | 광주 동구 ACC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

작품판매전

심상적 풍경 너머로 열린 사유를 되짚는 작가

하늘과 수평선, 그 아래에 깊숙이 자리한 바다는 검주어진 무의식의 기억처럼 모든 것을 감싸 안고 묵묵한 침묵으로 존재한다. 하늘과 지평선, 그 정경에 아스라히 자리한 부드러운 능선, 그 평온해 보이는 그 선들에 가까이 다가서면 날카로운 선들이 영락이져 있다. 마치 의식 속에 살아 존재하는 수많은 기억, 상념, 아우성의 회로처럼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소리를 낸다.

그러한 하나하나의 선들이 모여 형상을 만들고 가며 우리의 수많은 무의식의 기억들은 이어지며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들이 모여 숲의 능선을 만들어 가듯.....

조 강현 작가

개인전 16회 (서울, 광주, 도쿄, 리용, 화순)

단체전 400회 (파리, 도쿄, 북경, 서울, 광주, 양주, 제주도, 대전 등)

기타경력 문화관광부장관 공로상, 연프르니 에비뉴 실용문화인 선정, 서울시립미술관 SeMa작가 선정,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

작품소장 과천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제주시립미술관, 전주지방법원정음지원, 한일APT베라체, (주)영무건설, (주)연프르니에비뉴, 나눔문화연구소, 2byte글씨미디어, 우재길미술관, 아진미술관, 호남대학교미술관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 문의 | 광주매일신문 062) 650-2079